

LG화학, 중국 산업재테크 강화

Tianjin 산업재테크센터 설립 ... 상하이 · 광저우 · 난징 이어 4번째

LG화학(대표 노기호)은 중국 Tianjin에 있는 전자재 생산법인인 LG신형건재에 LG화학 중국 산업재 테크센터를 설립했다고 12월7일 발표했다.

LG화학은 중국에서 상하이와 광저우에 석유화학 부문 테크센터, 난징에 정보전자소재 부문 테크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4번째 테크센터를 갖추게 됐다.

LG화학은 중국 지주회사 체제가 본격 출범하는 2005년 이후 테크센터를 지주회사인 LG화학 중국투자유한공사 산하에 독립 연구조직으로 발전시켜 중국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전자재 · 산업자재 R&D 전략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12/09>